

## 현대중국어의 'V<sub>1</sub>NumP' 구문 연구\*

김혜진\*\*

### 목 차

1. 서론
  2. 구성요소 분석과 결합 양상
    - 1) 'V'의 속성
    - 2) 'NumP'의 속성
    - 3) 'V'와 'NumP'의 결합 특징
  3. 구문의 특징
    - 1) 분포적 특징
    - 2) 상적 특징
    - 3) 화용적 특징
  4. 논의
    - 1) 구문 생성의 동인
    - 2) 구문화의 주요 기제
    - 3) 구문의 확장 가능성과 남은 문제
  5. 결론
- [참고문헌]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8967). 본 연구는 2018년 4월 28일 한국중어중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논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주신 백은희 선생님, 손정애 선생님, 이슬기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부족한 글을 꼼꼼히 읽고 귀중한 조언을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다만, 본 논문에 남아 있는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대중국어에서 발견되는 ‘V+ 个+ NumP’ 구문의 구문적 지위를 검토하고, 고유한 화용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V+ 个+ NumP’ 구문은 동사의 범주 확장 및 수량 구조의 다양성을 통해 독특한 특징을 보이며, 목적어의 분포에서 일정한 제약을 나타낸다. 또한, ‘V+ 个+ NumP’ 구문은 실현 양태를 표현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비실현 양태와 습관상에서 주로 발견된다. 화용적 측면에서는 주관적인 양의 해석을 통해 추상적인 양을 표현하는 데 ‘V+ 个+ NumP’ 구문의 선택이 선호된다. 이 구문은 구어적 색채가 강하며 가벼운 어감을 나타낸다. 구문 생성의 주요 기제는 양(量)에서 정도(程度)로의 은유적 확장인데 이는 주관화(subjectification)를 통해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V+ 个+ NumP’ 구문과 형식적으로 유사한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구문 생성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个, 분류사, 구문화, 주관화, 은유, 타동성, 주관량, 양, 정도

## 1. 서론

현대중국어는 유형론적인 측면에서 수분류사(numeral classifier)언어에 속한다. 수분류사의 기능은 의미적으로는 명사를 부류화하는 작용을 하고, 기능적으로는 수사와 함께 명사 지시체의 양화 기능을 하는 것이다. 현대중국어에서는 명사의 부류화 기능과 양화 기능을 지닌 개체 양사가 수분류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1)</sup> 수분류사의 의미, 기능적 속성은 분포적인 특징을 결정하게 된다. Aikhenvald(2000:98)는 수분류사는 양과 관련된 표현이나 수사 명사구(numeral NP)에 근접하게 나타나야 하며, 수사 명사구의 범위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대중국어에서도 개체 양사는 수사와 공기하여 명사 앞에 위치하는 고정적인 어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에서 개체 양사의

1) 유형론적 분석에서는 종종 분류사라는 용어가 채택되는데(박정구2012, 김혜진2020), 본 논문에서는 분류사라는 용어와 함께 중국어의 통사구조를 설명할 때 독자들의 혼동을 줄이고자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양사라는 용어를 적절히 혼용하였다.

품사체계에 속해 있는 '수'가 비전형적인 분포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sup>2)</sup>

a. 买个二三百本

b. 每星期来个一两趟

(1a,b)에서 '수'는 동사와 수량 구조 사이에 분포한다. 이러한 구문에서는 '수'가 부류화할 명사 지시체를 갖지도 않으며 '수'의 앞에 수사를 넣을 수도 없다. 朱德熙(2007:49)에서는 (1a)에 나타난 '수'를 개체 양사의 독특한 용례로 분류하였고, 呂叔湘(2002:222)에서는 (1b)의 '수'를 동작과 관련된 양사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해석 모두 (1a,b)에 나타나는 '수'의 품사체계를 양사에 귀속시키고 있지만 해당 구문에 나타난 '수'는 전형적인 양사의 분포와 거리가 멀다. 따라서 우리는 (1a,b)에서 '수'는 전형적인 개체 양사의 기능과 의미 대신 특정한 구문적 의미를 발현하는 구문의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a,b)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구문을 'V+수+NumP' 구문으로 부르려고 한다<sup>3)</sup>.

선행연구에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V+수+NumP' 구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구문적 관점에서는 '수'의 뒤에 명사가 후치하는 'V+수+N' 구문(周清艳 2015, 雷冬平 2017, 熊周梦为·王宇波 2020, 陆志军 2022 등)과 서술성 술어가 등장하는 'V+수+VP' 구문(刘振平·闫亚平 2019, 尚新 2009, 祁杰 2010, 朱洁·董盼 2013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다. 그러나 'V+수+NumP' 구문에 대한 관찰은 비교적 드물며 雷冬平(2017)에서는 'V+수+NumP' 구문을 주목하였으나

2) (1a)는 朱德熙(2007:49), (1b)는 呂叔湘(2002:222)에서 인용.

3) 중국어에서 수량 구조는 일반적으로 수+양+명(數量名)어순을 갖는다. 현대중국어에서 분류사에 해당하는 양사는 부류화 기능에 의해 의미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명사가 생략되기도 하고, 화용적 목적에 의해 문두에 위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량 구조에 해당하는 'NumP'는 수+양(數量)구조 혹은 수+양+명(數量名)구조를 모두 포함 시킨다.

단순히 명사의 확장으로 해석하여 ‘V수N’ 구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朱德熙(2007)와 呂叔湘(2002)은 ‘V+ 수+ NumP’ 구문을 양사 ‘수’의 비전형적인 분포 혹은 비전형적인 기능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현상을 기술하는 단계에 그쳐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선행 연구에서는 ‘V+ 수+ NumP’ 를 하나의 구문으로 인정하고 자세히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문법화의 관점에서 한 단어의 의미가 의미적 유사성에 의해 파생되는 것처럼 구문의 생성 역시 일반적인 구조에서 다양한 언어적 기제에 의해 독립된 구문으로 변화해 가는 구문화 과정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을 통해 ‘V+ 수+ NumP’가 일정한 구문적 지위를 획득하였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 2. 구성요소 분석과 결합 양상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동사 후치의 ‘一+ 수+ 名’은 대상역으로 해석되며 목적어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어의 형태, 통사적 특징에 의해 ‘一+ 수’는 동사 후치 분포에서 수사 ‘一’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문법화의 관점에서 의미 탈색과 형식의 약화를 통해 형태적 소실이 유도되기도 한다. 또한 동사에 후치하는 ‘一+ 수+ 名’ 구조에서 명사가 종종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V+ 수+ NumP’는 여전히 목적어가 대상역으로 해석되는 동목적 구조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자연언어에서 발견되는 ‘V+ 수+ NumP’에서는 목적어가 대상역으로 해석되는 일반적인 동목적 구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V+ 수+ NumP’ 구문의 구성성분인 ‘V’와 ‘NumP’의 속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결합 양상을 통해 ‘V+ 수+ NumP’ 구문이 독립된 구문적 지위를 얻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 1) 'V'의 속성

문장에서 목적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타동성(transitivity)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목적어는 동사의 논항 중 하나로, 동사가 요구하거나 작용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목적어의 유무와 동사의 작용 방식은 타동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V+ 个+ NumP'에서 '个'에 후치하는 성분 'NumP'를 목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V'가 타동사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자연언어에서 'V+ 个+ NumP' 구문에 나타나는 'V'는 타동사에서 자동사로 확장되고, 형용사<sup>4)</sup>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타동사에서도 타동성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2)

- a. 2004年出版的《奥运英语导航》也就十来块钱，可是每个月也才卖个两三本。  
2004년에 출판된 《올림픽 영어 내비게이션》은 겨우 10여 위안 밖에 안되는데, 한 달에 겨우 두세 권 팔린다.
- b. 底能够容纳几个门户网站？我的看法是不会太多，也可能最多就是能容纳个两三家吧？  
搞得不好说不定就是一两家。  
도대체 몇 개의 포털 사이트를 수용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많아야 두세 개 정도일 것이다. 잘못하면 한두 개밖에 안 될 수도 있다.
- c. 一年怎么也得去个两三次，一次最少呆两三个星期。  
1년에 아무리 적게 가도 두세 번은 가야 하고, 한 번 가면 최소 2, 3주를 머물러야 한다.
- d. 再写一篇《快乐的八路军》，加上已有的《子夜岗兵颂》，总共有个七八篇就行了。  
다시 한 편의 《즐거운 팔로군》을 써서, 기존의 《자정 초병 송》과 합치면 대략 일곱 여덟 편이면 충분하다
- e. 好地段的房子，没有个八九十万元，根本拿不下来。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은 8, 90위안이 없으면 아예 살 수 없다.

4) 張國憲(2016:114)에서는 형용사를 동사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였고, Chao(1968:663)에서는 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를 동사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2a-e)는 모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동사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타동성의 정도는 균일하지 않다. (2a,b)에서는 동작과 대상의 관계가 분명하며 타동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2c-e)에서는 각각 이동동사, 존재동사, 부재를 나타내는 동사로 타동성이 비교적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V+ 个+ NumP’ 구문에서 ‘V’는 다음과 같이 자동사, 형용사까지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3)

a. 关键是现在生意忙, 要走个两三天还真脱不开身。

문제는 지금 일이 바빠서 이삼일 정도 가려고 해도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거야.

b. 再说, 即使火车过不去, 钉道工作停个两三天, 挨批评又有啥要紧?

게다가, 설령 기차가 지나가지 못하고 선로 작업이 이틀이나 사흘 정도 멈춘다고 해도, 비난 받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

c. 一个学生一学期缺个三四天课在哪个大学都是常有的事, 顶多给个警告处分。

한 학생이 한 학기에 3, 4일 정도 수업을 빠지는 건 어느 대학에서나 흔한 일이야. 고작해야 경고 처분을 받을 뿐이야.

d. 我们都不说的话谁也不会知道的。旧制服少个一两件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헌 유니폼이 한두 벌 정도 줄어도 말이야.

e. 我只要再重个一两公斤, 或屁股像芭芭拉的那么大, 肯定过不去。

내가 1, 2kg 정도만 더 늘거나 엉덩이가 바바라처럼 크면, 분명 통과하지 못할 거야.

(3a,b)에서 ‘走’와 ‘停’은 모두 자동사로 분류되며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 (3c-e)에서 ‘缺’, ‘少’, ‘重’은 형용사의 속성을 지닌 성질 동사에 속한다. 자동사와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낮은 타동성을 지닌다.

타동성은 자주성(volition)에 의해서도 분석될 수 있는데, 马庆株(1989)에서는 자주성의 개념을 동작이 의식적으로 발현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자주동사(自主动词)와 비자주 동사(非自主动词)를 나누었다. 자주 동사(volitional verbs)는 동작 주체의 의지나 의도를 포함하여 능동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동

사이다. 자주 동사를 통해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의 의지가 드러나며, '他打开了窗户(그가 창문을 열었다)'와 같이 주체가 행동의 방향이나 목적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 비자주 동사(non-volitional verbs)는 동작 주체의 의도나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玻璃碎了(유리창이 깨졌다)', '门开了(문이 열렸다)'와 같이 상태 변화, 결과, 또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동사이다. 따라서 비자주 동사는 주체의 의지가 없으며 외부 요인 또는 자연적인 결과를 주로 나타낸다. 'V+ 个+NumP' 구문에서는 자주 동사와 비자주 동사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4)

a. 家政保洁、美甲等上门服务经常用，电影基本上每周都去看个一两场，每年出国旅游两到三次。

가사 서비스, 네일아트 같은 방문 O2O 서비스는 자주 이용하고, 영화는 기본적으로 매주 한두 편씩 보고, 매년 두 번에서 세 번 해외여행을 간다.

b. 结实耐穿已不是第一位的选择。服装流行周期缩短，一些时装穿个一两年就不再穿了，也确实没有必要结实无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이 더 이상 최우선의 선택이 아니다. 패션 유행 주기가 짧아져서, 어떤 옷은 1, 2년 정도만 입고 더 이상 입지 않게 되니, 굳이 그렇게 튼튼할 필요도 없다.

(4a,b)에서 '看'과 '穿'은 동작 동사로 전형적인 자주 동사에 해당하며 행위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다음 예시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5)

a. 谷雨一口气下个两三天，是常有的事。

곡우(谷雨)에는 이틀이나 사흘 연속으로 비가 오는 일이 흔하다.

b. 恢复个两三年以后，可能会借用手势表达一些简单的意思。

2, 3년 정도 회복하고 후에는 간단한 뜻을 손짓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c. 这样一看, 一个人的性情趣味便看出个八九分来。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의 성격과 취향이 여덟, 아홉(열에 아홉) 정도는 드러난다.

(5a)에서 ‘下’는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비자주 동사에 속한다. 자연현상은 행위자의 의도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의도성을 지닌다. (5b)에서 ‘恢复’는 자동사로 행위자의 비의지에 의한 결과가 자주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처럼 자주성의 여부는 어휘의 속성에 의해 파악할 수 있지만 보조적인 수단에 의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 趙楠(2017)는 비자주 동사는 어휘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상황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며, 보어나 보조사와의 결합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5c)에서 ‘看出来’는 보어에 의해 ‘드러나다’, ‘보여지다’의 의미를 지니며 비자주적으로 해석된다.

‘V+ 个+ NumP’ 구문의 타동성과 자주성을 나타내는 양상은 자연언어의 수많은 문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정된 코퍼스<sup>5)</sup> 내에서 ‘V+ 个+ NumP’ 구문에 출현하는 ‘V’의 타동성과 자주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1 ‘V+ 个+ NumP’ 구문에서 ‘V’의 타동성과 자주성

타동성			합계	자주성		합계 <sup>6)</sup>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		자주성	비자주성	
249	93	105	447	246	163	409
56%	21%	23%	100%	60.1%	39.9%	100%

5) 본연구에서 사용된 말뭉치자료는 북경어언대학교 BCC코퍼스(北京語言大學BCC語料庫)이다. 총 500개의 문맥을 추출하여 중복되거나, 속격 등의 다른 통사구조로 구분되는 예시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447개의 예시를 추출하였고, 관련 문맥과 함께 구문을 살펴 보았다.

6) 자주성 여부에서는 의도성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동사, 부제를 의미하는 동사 등은 제외 되었다.

[표-1]을 살펴보면 'V+ 个+NumP' 구문에서 타동사의 빈도가 56%로 현저하게 높다. 비록 타동사의 빈도가 현저하게 높지만, 타동성이 낮아지는 자동사와 형용사까지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V+ 个+NumP' 구문이 일반적인 동명 구조와 차별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타동성과 상호작용하는 자주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구문은 자주성과 비자주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다. 'V+ 个+NumP' 구문에서 'V'가 확장되는 방향은 문법화의 주요 요인이 되는 사용 빈도와 타동성 약화라는 일반적인 언어 이론을 통한 공식적 고찰을 기준으로 한다.<sup>7)</sup>

## 2) 'NumP'의 속성

'V+ 个+NumP' 구문에서 'NumP'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양사가 합쳐져 결합된 구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중국어는 수를 나타내기 위해 분류사에 해당하는 양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朱德熙(2007:48-51)에서는 양사의 종류를 개체양사, 집합양사, 부정양사, 임시양사, 준량사, 동량사로 나누었다. 이중 부정양사는 '点儿', '些'의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수사 '一'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이 제한적이다. 또한 'V+ 个+NumP' 구문에서도 실현되지 않는다. 부정양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체양사, 집합양사, 임시양사, 준량사, 동량사를 살펴보면 크게는 명사를 수량화하는 명량사와 동사를 수량화하는 동량사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이때 개체양사와 집합양사는 각각 개체의 단수성과 복수성을 나타내는 하지만 모두 개체를 수량화한다는 점에서 명량사의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朱德熙(2007:50)에 따르면 임시양사는 양사로 차용된 명사인데, '一碗饭', '一口袋面'과 같이 개체양사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一脸汗'(온 얼굴의 땀), '一桌子土'(온 탁자의 흙)'에서처럼 '满脸(얼굴 가

7) 타동성 약화에 따른 구문의 확장가능성은 4-2. 구문화의 주요 기제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득), ‘满桌子(탁자 가득)’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따라서 명량사의 범주에 ‘一碗饭’, ‘一口袋面’과 같이 임시양사의 개체화 기능만을 포함시킨다. 준량사는 양사로도 볼 수 있고, 명사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이 모호하다. 朱德熙(2007:50)는 현대중국어에서 수량을 나타낼 때 양사가 필수적이라는 근거에 의해 이를 양사로 취급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상정할 수는 있지만 명사의 의미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생략되어도 의미가 통하게 된다. 이때 명사는 종종 추상적 개념을 수량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의 분류에서는 준량사를 일반적인 명량사와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Chao(1968:585-620)에서는 양사를 9종류로 세분화하였는데,<sup>8)</sup> 주목할 점은, 도량사를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이다. 도량사는 개체나 물질을 측정할 수량으로 개체의 객관적인 수량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척도를 통한 정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분류 항목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다.

주요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양사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2 'V+수+NumP' 구문에서 실현되는 양사 분류

분류	명량사	준량사	도량사	동량사
구분	개체량	추상량	측정량	동작량
의미	개체명사 수량	추상명사 수량	성질의 양	동작의 양

[표-2]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상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명량사, 준량사,

8) Chao(1968:585-620)에서는 개별 측정 분류사(Classifiers: Individual Measures), 동사-목적어(V-O) 구문에 특화된 분류사(Classifiers Specially Associated with V-O Constructions), 집단 측정(Group Measures), 부분 측정(Partitive Measures), 용기 측정(Container Measures), 임시 측정(Temporary Measures), 표준 측정(Standard Measures), 준측정(Quasi-Measures), 동사를 위한 측정(Measures for Verbs)으로 구분하였다.

도량사, 동량사의 4가지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각 분류에 따른 예시는 [표-3]과 같다.

표-3 양사 종류와 예시

양사 종류	예시
명량사	开个两三朵, 买个两三个, 卖个一两双
준량사	等个一两天, 输个一两分, 讲解个六七成, 打个六七折
도량사	弄个一两千斤, 跑个三五公里
동량사	来个两三回, 看个一两眼, 打个一两圈

[표-3]을 살펴보면 명량사는 일반적으로 개체양사이지만, ‘双’과 같은 집합양사가 사용되기도 한다. 준량사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양사 역할을 담당하고, 점수, 퍼센트, 할인율 등의 척도를 나타내는 명사로 실현되기도 한다. 도량사는 거리,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가 주로 사용된다. 동량사는 전형적인 동량사 외에 ‘眼’, ‘圈’과 같이 차용양사를 통해 동작의 양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상으로 ‘V+수+NumP’ 구문에 나타난 양사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4 V+수+NumP구문에서 양사 분류에 따른 빈도

명량사	준량사	도량사	동량사	합계
65개	208개	95개	79개	447개
14.5%	46.5%	21.3%	17.7%	100%

[표-4]에 따르면 한정된 코퍼스 내에서 구문에 사용되는 양사의 빈도는 준량사, 도량사, 동량사, 명량사의 순이다. 주목할 점은 준량사의 빈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는 명사가 양사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준량사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높은 빈도를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명량사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제일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V+수+NumP’ 구문이

전형적인 동목 구조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한편, ‘NumP’에서 수사는 대부분 인접한 두 수의 병렬을 통해 어림수를 나타내는데, 다음과 같이 관용적인 수량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6)

a. 他的无聊像一种病症似的, 又被这大事治住个三两天。

그의 무료함은 마치 어떤 병증과 같았는데, 이번 큰 사건으로 인해 잠시 이삼일 정도는 잠잠해졌다.

b. 这也只是紧个三五天, 见你没回去, 也不会为难你妈。

이것도 겨우 사흘이나 닷새 정도 긴박한 거지, 네가 돌아가지 않는 걸 보면 네 엄마를 곤란하게 하진 않을 거야.

(6a)에서 ‘三两’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비교적 적은 시간이나 양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고, (6b)에서 ‘三五’는 비교적 적은 범위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 3) ‘V’와 ‘NumP’의 결합 특징

‘V+ 수+ NumP’ 구문에서 ‘V’와 ‘NumP’의 결합 특징을 통해 ‘V+ 수+ NumP’ 구문의 구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雷冬平 (2017)에서는 본고의 ‘V+ 수+ NumP’ 구문을 단순히 ‘V+ 수+ N’ 구문에서 명사의 확장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V+ 수+ NumP’ 구문에서 ‘수’에 후치하는 성분 ‘NumP’는 명사의 생략이나 도치 등의 통사적 특징에 의해 목적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V+ 수+ NumP’ 구문 내에서 ‘수’와 ‘NumP’의 관계를 긴밀하게 설명해 내지 못한다. 수량 구조에서 명사가 생략되거나 문두로 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NumP’에 이미 관련된 양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V+ 수+ NumP’ 구문에서 명사와 ‘수’의 의미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V+ 수+ NumP’ 구문에서 ‘V’는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로,

'NumP'는 명량사, 준량사, 도량사, 동량사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동사에 따른 양사의 결합 방식을 살펴보고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타동사는 다음과 같이 명량사, 준량사, 도량사, 동량사 구조와 모두 공기할 수 있다.

(7)

- a. 这些亚洲人过来往盘子里划拉, 欧洲人也过来划拉, 最少的一次也要划拉个五六个。  
이 아시아인들이 와서 접시에서 음식을 퍼가고, 유럽인들도 와서 퍼가니, 적어도 한 번에 다섯, 여섯 개는 가져간다.
- b. 在深度游中, 博物馆是最好的去处, 沉潜个一两天甚或更久, 才是游览的重心。  
깊이 있는 여행 중 박물관은 최고의 장소로, 하루, 이틀 또는 더 오래 몰입하는 것이 여행의 핵심이다.
- c. 白酒八十岁老太太也能喝个两三斤。  
백주(白酒)는 80세 할머니도 두세 근 정도는 마실 수 있다
- d. “村里演电影吗?”“一年看个两三次, 可都是汉语片, 很多人听不懂。”  
마을에서 영화 상영하나요?” 일 년에 두세 번 정도 봐요. 대부분 중국어 영화라 많은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요.”

(7a)에서 '수'는 전형적인 명량사로 'NumP'는 명량사 구조이고, (7b)에서 '天'은 하루라는 의미로 시간을 나타내는 준량사이다. (7c)에서 '斤'은 근을 나타내며 무게를 나타내는 도량사이며, (7d)에서 '次'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동량사로 동작의 양을 나타낸다. 자동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준량사, 도량사, 동량사 구조와 공기한다.

(8)

- a. 走个三五分钟, 就从观景区到了东堡村芦家街, 这里有白酒作坊的“活化石”  
3~5분만 걸으면 관광 구역에서 동보촌(东堡村) 루가제(芦家街)로 갈 수 있는데, 이곳에는 백주(白酒) 양조장의 “살아 있는 화석”이 있다.
- b. 我一跑就累, 但走个两三公里没问题。  
나는 달리면 금방 지치지만, 2, 3km 정도 걷는 건 문제없다.
- c. 尽收眼底, 旅行结束后还可以把自己的攻略分享给小伙伴, 一年出去玩个四五次轻轻松

松。

풍경을 만끽하며 여행이 끝난 뒤에는 자신의 여행 팁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1년에 네다섯 번 정도 놀러 가는 것도 쉬운 일이다.

(8a)에서 ‘分钟’은 ‘분’을 의미하며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준량사이며, (8b)에서 ‘公里’는 거리를 나타내는 도량사이다. (8c)에서 ‘次’는 동량사이다. 형용사에서는 명량사, 준량사, 도량사 구조와 공기한다.

(9)

a. 多个三篇五篇, 少个三五十篇, 又有什么影响呢?

몇 편이 더 많아지고, 서너 십 편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b. 老婆说, 哪怕晚个五六天, 让我帮你把蒜薹拔完。

아내가 말하길, 비록 5, 6일 정도 늦더라도, 내가 너를 도와 마늘종을 다 뽑아줄게.

c. 冬天吃吃冰淇淋, 而且吃得还真快一般来大姨妈我都会胖个两三斤。

겨울에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게다가 정말 빨리 먹어요. 보통 생리 중에는 2~3키로 정도 체중이 늘어나요.

(9a)에서 ‘篇’은 문서나 글 단위를 세는 명량사이고, (9b)에서 ‘天’은 하루를 의미하며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준량사이다. (9c)에서 ‘斤’은 무게를 측정하는 도량사이다. 이상으로 ‘V+수+NumP’ 구문에서 ‘V’와 ‘NumP’의 공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5 ‘V+수+NumP’ 구문에서 ‘V’와 ‘NumP’의 결합 양상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
명량사	+	-	+
준량사	+	+	+
도량사	+	+	+
동량사	+	+	-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타동사는 모든 양사와 공기할 수 있지만 자동사와 형용사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준량사와 도량사는 모든 동사 종류와 공기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 3. 구문의 특징

앞선 논의에서는 'V+ 个+NumP' 구문의 구성 성분과 결합 양상의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동명 구조와 구분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V+ 个+NumP' 구문이 독립된 구문으로 구문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여기서는 각 언어 환경에서 'V+ 个+NumP' 구문이 발현하는 특징들을 분석하여 'V+ 个+NumP' 구문의 고유한 구문적 지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 1) 분포적 특징

일반적인 명량사로 이루어진 수량 구조에서 명사는 수량구의 뒤에 놓여 전형적인 수+양+명(数量名)분포를 이루거나 화용적인 목적에 의해 화제(topic)의 위치에 분포한다. 또한 명량사가 갖는 명사의 부류화 기능으로 인해 문맥적으로 유추 가능할 경우 명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V+ 个+NumP' 구문에서는 명사의 첨가에 있어 특정한 제약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V+ 个+NumP' 구문에서 목적어로 인식되는 명사의 분포적 제약을 살펴보려고 한다.

'V+ 个+NumP' 구문에서 'NumP'가 명량사일 때 목적어의 분포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10)

a. 她还是会上哈利酒吧, 但现在只是晚上来喝个一两杯啤酒。

그녀는 여전히 해리바에 가지만, 이제는 밤에 가서 맥주 한두 잔만 마신다.

b. 旧制服少个一两件的, nhk也不会为难。

낡은 유니폼이 한두 벌 부족하더라도 NHK는 곤란하지 않을 거야.

c. 最好是法国葡萄酒。我带个两三瓶来也不成问题。

가능하다면 프랑스산 와인이 가장 좋다. 내가 두세 병 정도 가져오는 것은 문제없어.

(10a)에서는 명사가 수량 구조에 후치하여 수량명(數量名)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10b)에서처럼 명사가 화제의 위치에 분포할 수 있다. 또한 (10c)와 같이 비록 명사가 생략되고 화제 위치에 분포하지는 않지만 문맥을 통해 추론 가능하다. 이처럼 명량사의 부류화 기능을 통해 명사 지시체가 유추될 경우 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개체를 계량화하는 기능의 도량사도 명량사와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인다. 다음을 살펴보자.

(11)

a. 现在如有人到我们这里来讨馍馍, 一天可以给个一两千斤洋芋。

지금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빵을 얻으러 온다면, 하루에 1,000~2,000근 정도의 감자를 줄 수 있다.

b. 原来坡地上马铃薯一亩地就收个三五百斤。

원래 비탈진 땅에서는 감자가 한 묘당 겨우 300~500근 정도밖에 수확되지 않는다.

c. 站在堂前的平场里, 或爬上穹隆顶里, 也可看个五六十里。

당 앞의 평지에 서 있거나 둥근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도 50~60리 정도를 볼 수 있다.

(11a)에서는 명사 ‘洋芋’가 출현하여 수량명(數量名)의 어순을 이루고, (11b)에서 명사 ‘马铃薯’는 화제의 위치에 분포한다. (11c)에서는 ‘视野’, ‘距离’와 같은 관련 명사를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도량사의 분포는 명량사의 분포와 비교적 동일하다. 준량사일 경우 명사가 일반적으로 생략된다. 이는 특정한 명사가 양사로 기능하는 준량사의 특성과 관련 있는데, 명사가 문맥에 출현하지 않아도 준량사를 통해 의미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자.

(12)

- a. 再怎么说她也是你的旧爱呢! 总要说个一两句吧?  
아무리 그래도 그녀는 네 옛사랑이잖아! 한두 마디는 해야 하지 않겠니?
- b. 他要把人家搁在那里搁个两三个钟头, 脸上出了油, 胭脂花粉褪了色, 他可以看得亲切些。  
그는 사람을 그곳에 두어 두세 시간 정도 머물게 하고, 얼굴에 기름이 올라오고 화장이 지워지면, 더 친근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a)에서 '句'는 '마디'를 뜻하며 말과 관련된 의미를 연상할 수 있고, (12b)에서 钟头는 '시간'을 뜻하며 시간과 관련된 명사 지시체를 연상할 수 있다. 이처럼 명사의 의미를 통해 기능하는 준량사는 명사가 생략되는 현상이 일반적이지만 (12a,b)에서 준량사와 관련된 '话', '时间' 등의 관련 명사류를 첨가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V+ 个+ NumP' 구문에서 'NumP'가 동량사일 경우 목적어의 분포 양상은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동량사의 수량 구문에서 목적어가 지명일 경우 다음과 같은 어순이 가능하다.

(13)<sup>9)</sup>

- a. 他几乎每半年要去中国一两次。  
b. 他几乎每半年要去一两次中国。  
그는 거의 반년마다 한두 번 중국에 간다.

(13a)에서는 목적어인 '中国'가 동사와 동량 구조 사이에 위치하고 (13b)에서는 '中国'가 동량 구조 뒤에 위치한다. 그러나 'V+ 个+ NumP' 구문으로 구현될 때 목적어는 수량 구조 앞이나 동사 뒤에 위치할 수 없다. 이는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 \*a. 他几乎每半年要去个中国一两次。

9) 동량 구조가 목적어에 전치하거나 후치하는 어순은 특정한 문맥에서 모두 실현 가능하며 개별적인 정보구조를 지닌다. 이는 Wang(2023)을 참고할 수 있다.

\*b. 他几乎每半年要去中国个一两次。

(14a)에서 ‘中国’는 ‘个’와 수량 구조 사이에 분포할 수 없고 (14b)에서처럼 동사와 ‘个’ 사이에 분포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은 비단 동량 구조에서 지명 목적어와의 분포뿐 아니라 일반명사에서도 적용된다.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연언어에서 ‘吃一两次苹果’와 ‘吃苹果一两次’의 어순은 특정한 문맥이 상정된다면 모두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吃苹果一两次’는 ‘V+个+NumP’ 구문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제약은 대명사를 목적어로 사용하는 구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 일반적으로 대명사 목적어는 다음과 같이 동사와 수량 구조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15)

a. 那你就给他一两本看看吧。

그러면 그에게 한두 권 보여주세요.

b. 那你就念它一两遍, 练习一下就好

그러면 그것을 한두 번 읽어보세요, 연습하는 데 충분할 거예요.

c. 再等我两三分钟, 我马上到!

2~3분 정도 나를 좀 기다려줘, 금방 도착할게!

d. 量它一两斤, 看够不够。

그것을 한두 근 계량해서 충분한지 확인해 봐.

(15a)는 이중타동문으로 ‘他’는 간접목적어로 해석되고, (15b-d)에서는 각각 ‘它’, ‘我’, ‘它’가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V+个+NumP’ 구문으로 구현될 수 없다. 다음을 살펴보자.

\*(16)

a. 给个他一两本 / 给他个一两本

b. 念个它一两遍 / 念它个一两遍

- c. 等我两三分钟 / 等我个两三分钟  
 d. 量个它一两斤 / 量它个一两斤

(16a-d)에서와 같이 '수'는 동사와 대명사 목적어 사이에 분포할 수 없고, 대명사 목적어와 수량 구조 사이에 분포할 수 없다.<sup>10)</sup> 이처럼 목적어의 분포 특성과 제약을 통해 일반적인 수량 구문과 변별되는 'V+ 수+NumP' 구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V+ 수+NumP' 구문에서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출현하더라도 'V+ 수+NumP' 구문 내에 분포할 수 없다. 이러한 관측을 통해 'V+ 수+NumP' 구문에서는 각 요소들이 통사적으로 긴밀하게 결합 되어 하나의 덩어리로 작용하는 구문화의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2) 상적 특징

'V+ 수+NumP' 구문은 고유한 상적 특성을 지닌다. 여기서는 'V+ 수+NumP' 구문이 발현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을 통해 구문의 독립된 지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V+ 수+NumP' 구문이 실현되는 주요한 언어 환경은 비실현 양태이다. Givon(2001:305)에 따르면 사건이나 동작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나타내는 실현 양태와 달리, 비실현 양태는 사건이나 동작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나, 가정, 가능성, 미래와 관련된 상태를 나타낸다. 자연언어에서 'V+ 수+NumP' 구문이 주요하게 실현되는 문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를 나타내는 양태 조동사와의 공기이다.

(17)

- a. 这个春节少了也能挣个四五万元

이번 설에는 적게 벌어도 4,5만 위안 정도는 벌 수 있겠어.

10) 자연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V他个', 'V它个' 등의 형식에서는 대명사 '他', '它'는 허화 되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관련 논의는 彭睿(2021)를 참고할 수 있다.

- b. 冷言冷语, 别说帮忙贷款、推销农产品什么的, 就是盖个章, 也得跑个三四回  
냉담한 말투로 대하다 보니, 대출을 돕거나 농산물을 홍보해 주는 건 고사하고, 도장 하나 받으려 해도 서너 번은 뛰어다녀야 해.
- c. 一年可以有个三四万吧。  
1년에 3,4만 위안 정도는 벌 수 있다.

(17a-c)는 각각 ‘能’, ‘得’, ‘可以’ 와 같은 양태 조동사를 통해 사건, 행위가 아직 실행되지 않은 비실현 양태를 표현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V+ 个 + NumP’ 구문은 다음과 같이 조건·가정문에서 자주 사용된다.

- (18)
- a. 一年种个四五茬, 一亩收上几十斤糜子。  
한 해에 네다섯 번 정도 심어야, 한 마지기에서 수십 근의 기장을 수확할 수 있다.
- b. 一年分个五六万不成问题!  
일 년에 5, 6만 위안 정도 나누는 것은 문제없다.
- c. 这菌每天都长个不停, 他早上摘个一两筐到集市卖, 能得数百文。  
이 버섯은 매일 계속 자라는데, 그는 아침마다 한두 바구니씩 따서 시장에 가져가 팔면 몇백 문을 벌 수 있다.

(18a-c)는 모두 조건·가정문이다. 조건·가정문은 모두 비실현 양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언어에서 ‘V+ 个+ NumP’ 구문은 비실현 양태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비실현 양태를 ‘V+ 个+ NumP’ 구문의 상적 특징으로 귀납할 수는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이 습관상을 통해 발견되는 ‘V+ 个+ NumP’ 구문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자.

- (19)
- a. 在安庆市黄梅戏艺术剧院, 一般演员一个月拿个两三千元。  
안칭시 황매극예술극단에서 보통 배우들은 한 달에 2, 3천 위안 정도를 받는다.
- b. 司请了月嫂, 但当时的月嫂很多知识都不懂, 经常做一顿臊子面让我吃个两三天。  
회사에서 산후조리사를 고용했지만, 당시의 조리사들은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 자주

면 요리를 만들어 주어 이삼일 먹곤 했다.

c. 每次罰个两三百块, 车主跳上车, 扬长而去。

매번 2~300위안 정도를 벌금으로 부과해도 차량 주인은 차에 올라타 도망치곤 한다.

(19a-c)는 모두 습관상으로 해석된다. 습관상은 본질적으로 시간적 특정성을 배제하고, 행동이나 상태의 반복적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현성과 비실현성의 구분이 모호하다. 습관상은 시제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V+ 个+NumP' 구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에서 모두 습관상을 나타낼 수 있다.<sup>11)</sup>

(20)

a. 他小时候每天喝个两三杯咖啡。

그는 어렸을 때 매일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시곤 했다.

b. 他每天喝个两三杯咖啡。

그는 매일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신다.

c. 他以后每天都会喝个两三杯咖啡。

그는 앞으로 매일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실 것이다.

(20a)에서는 '小时候'와 같은 시간부사를 통해 과거시제로 인식할 수 있다. (20b)에서는 '每天'에 의해 현재시제로 인식할 수 있다. (20c)에서는 부사 '以后'와 양태 조동사 '会'를 통해 미래시제로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시제를 통해서는 'V+ 个+NumP' 구문이 습관상을 실현할 때 실현성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해진다. 그러나 명사 지시체의 해석적 관점에서 Givón(2015:308)은 습관상에서 명사구의 비지시적 해석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실현 양상과 유사하다고 정의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습관상은 실현, 비실현에 관한 양태 분석에

11) 현대중국어에서 무표지 동사는 문맥을 통해 완료, 비완료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습관상 역시 무표지 동사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반해 'V+ 个+NumP' 구문이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은 제약적이며 단지 비실현, 습관상에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독립된 구문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있어 비교적 독립적인 범주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V+ 个+ NumP’ 구문은 실현 양태를 나타내는 데 어떠한 제약이 있을까. 중국어는 영어와 같이 전통적인 시제 어미가 없지만, 시간 부사어나 문맥, 또는 동사의 상(aspect) 표지를 통해 시간정보를 전달한다. 따라서 현대 중국어에서 실현된 사건에 대해서는 동태조사 ‘了’를 사용하여 현재와의 거리를 나타내거나 동태조사 ‘过’를 사용하여 과거 경험을 나타낸다. ‘V+ 个+ NumP’구문은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실현된 사건이나 과거에 일어난 경험을 표현하지 못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1)

- a. 去年, 我买了一两条裙子  
작년에, 나는 치마 한두 벌을 샀다.  
\*b. 去年, 我买了个一两条裙子

(21a)에서는 시간부사 ‘去年’을 통해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동태조사 ‘了’를 사용하여 사건이 완료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문맥에서는 (21b)와 같이 ‘V+ 个+ NumP’ 구문으로 실현될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V+ 个+ NumP’ 구문은 과거 시점의 경험을 표현할 수 없다. 다음을 살펴보자.

(22)

- a. 以前, 吃过一两次蛋糕  
예전에, 케이크를 한두 차례 먹은 적이 있다.  
\*b. 以前, 吃过一个一两次蛋糕

(22a)에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以前’을 통해 과거 시점을 나타내고, 경험을 나타내는 동태조사 ‘过’를 통해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문맥에서는 (22b)와 같이 ‘V+ 个+ NumP’ 구문으로 구현될 수 없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V+个+NumP’ 구문이 과거 시점에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즉 시간(时段)이나 반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논의한 습관상 과도 관련이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23) 以前, 蛋糕一年吃个一两次  
예전에, 케이크는 일 년에 한두 차례 먹었다.

(23)은 ‘以前’이라는 시간명사로 인해 시간상으로는 과거 시점이지만 ‘一年’이라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이때 ‘V+个+NumP’ 구문으로 구현 가능하다. 이처럼 시간이 설정되어 반복되는 행위나 사건을 묘사하는 것은 습관상이다. 앞서 ‘V+个+NumP’ 구문은 습관상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파악한 바 있다. 따라서 ‘V+个+NumP’ 구문은 과거에 완료되거나 경험한 사건과 같은 실현 양태를 표현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량 구문은 실현 양태와 비실현 양태의 표현에 있어 자유롭지만 ‘V+个+NumP’ 구문은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V+个+NumP’ 구문은 주로 비실현 양태를 나타내고, 실현 양태를 표현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또한 시제에 상관없이 주요하게 습관상을 통해 발현된다. 이처럼 시간의 표현에 있어 ‘V+个+NumP’ 구문이 변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통해 구문의 고유한 지위를 추론해볼 수 있다.

### 3) 화용적 특징

‘V+个+NumP’ 구문은 특정한 문맥을 통해 고유한 화용적 의미를 발현한다. 여기서는 ‘V+个+NumP’ 구문의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학계에서 ‘V+个+NumP’ 구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해석을 찾아볼 수 있다. 吕叔湘(2002:223)는 ‘V+个+NumP’ 구문이 가벼운 어감을 드러낸다고 하였고, 雷冬平(2017)는 ‘V+个+NumP’ 구문이 대량(大量)

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비록 이는 원어민 화자의 직관에 의존한 간단한 묘사이지만 ‘V+ 수+NumP’ 구문의 화용적 해석을 크게 귀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선행연구를 통해 귀납한 양에 관한 직관과 구문이 지닌 뉘앙스를 자연언어의 수많은 문맥에서 찾을 수 있는 실례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먼저 ‘V+ 수+NumP’ 구문의 양에 관한 해석이다. ‘V+ 수+NumP’ 구문은 수량 구조에 의해 양에 관한 해석이 두드러진다. 코퍼스에서 발견되는 수량 구조의 어림수는 ‘一两’, ‘两三’과 같이 십진법의 기수 중 상대적인 소량(小量)이 비교적 많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발화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소량이 주관적인 소량으로 해석되거나, 반대로 상대적인 대량이 주관적인 대량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인 소량과 대량은 수량의 상대적인 크기보다 발화 상황과 문맥에 의한 논리적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24)

- a. 她们每晚都来, 但是她们也什么都没做, 收了酬劳, 坐个一两个小时就走人  
그녀들은 매일 밤마다 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수를 받고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떠난다.
- b. 有时, 不到一刻钟就钓个两三条,  
때때로, 한 15분도 안 돼서 두세 마리나 낚는다.

(24a)에서 ‘一两个小时’는 객관적으로 소량에 속하며 주관인 해석에 있어서도 소량을 의미한다. 반면 (24b)에서는 ‘两三条’는 객관적으로 소량에 속하지만 문맥 속에서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비되는 많은 양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대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을 살펴 보자.

(25)

- a. 一户一年挣个七八万不稀罕。  
한 가구가 일 년에 7,8만 위안 정도나 버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 b. 然后用步枪慢慢地射它, 估计也就用个七八发子弹就能有效果了。  
그런 다음 소총으로 천천히 사격을 한다면, 7~8발 정도의 탄환만을 사용하고도 효

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5a)에서 '七八'은 객관적인 대량에 속하며 문맥의 논리 관계에 따라 대량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25b)에서 '七八'은 비록 객관적으로 대량에 속하지만 '就'와 같은 부사를 통해 소량으로 해석되고 있다. 객관적인 수량에 따른 해석은 당연히 중립적일 수도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26)

a. 一家特别制造隆河白酒的酒窖，而这种白酒恰是我午餐时的最爱。再有个一两箱，就可以重新填满酒窖中上次家中举行狂欢酒会后腾出的空位了。

한 곳은 특별히 론강 백주(隆河白酒)를 제조하는 와인 저장고인데, 이 백주는 내가 점심 식사 때 가장 좋아하는 술이다. 한두 상자만 더 있으면, 지난번 집에서 열린 축하 연회 후 비어 있던 저장고의 공간을 다시 채울 수 있다.

b. 一般人家买台彩电、冰箱，若不是特殊原因，用个七八年，甚至十来年，是很正常的。 일반 가정에서 컬러 TV나 냉장고를 한 대 산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7~8년, 심지어 10여 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26a)에서 '一两'은 객관적으로 소량에 속하고 (26b)에서 '七八'은 대량에 속한다. 그러나 문맥에서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 중립적인 색채를 드러낸다. 중립적인 색채에서는 구문의 화용적 의미가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수량에 관한 주관적인 해석에서 수량의 의미는 추상적이고, 중립적일수록 수량이 구체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비록 'V+ 数+NumP' 구문이 주관적인 해석과 중립적인 해석을 모두 발현할 수 있지만 주관적인 해석에서 'V+ 数+NumP' 구문의 선택이 더 선호되며 더 의무적이다. 이는 'V+ 数+NumP' 구문이 발현하는 고유한 구문 의미는 추상적인 수량 의미에 의한 주관적 해석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주관량에 관한 해석은 주로 '至少', '顶多', '起码', '只', '就', '就没事了' 등과 같은 부사 혹은 어구들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문맥의 해석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한편 'V+ 数+NumP' 구문에서는 수사가 어렵수이기 때문에 구문은 명제를 단정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V+ 数+NumP' 구문은 비단

정적이고 가벼운 어감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또한 'V+ ㅅ+ NumP' 구문에서 'ㅅ'의 의미 약화에 따른 음성 약화는 음성적으로도 가벼운 어감과 묘사적인 생동감을 지니게 한다. 이처럼 가벼운 어감이 주는 구어적인 속성은 동사의 음절에도 영향을 주는데, 한정된 코퍼스 내에서 1음절 동사의 빈도가 현저하게 높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6 'V+ㅅ+NumP' 구문에서 'V'의 음절 수

1음절	2음절	2음절 이상	합계
402개	45개	0개	447
89.9%	10.1%	0%	100%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V+ ㅅ+ NumP' 구문에서 'V'의 음절 수는 1음절이 현저하게 높다. 이를 통해 'V+ ㅅ+ NumP' 구문이 주는 구어적 색채와 가벼운 뉘앙스를 추론해 볼 수 있다.

## 4. 논의

### 1) 구문 생성의 동인

현대중국어에서 수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양사를 사용해야 한다(朱德熙2007:50, Chao 1968:585).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어처럼 수량을 나타내기 위해 양사를 사용하는 언어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수분류사 언어로 분류된다(Allan1977). 대부분의 수분류사를 보유한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개별 분류사(Specific classifier: SC)를 통합할 수 있는 일반분류사(General classifiers: GC)를 갖는데(Aikhenvald(2000:98) 이는 현대중국어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수분류사 언어로 분류되는 현대중국어에서도 이러한 개별적인 양사를 수용하는 일반적인 양사가 있는데, 바로 '个'이다. 朱德熙(2007:41)는 '个'는 가장 널리 쓰이는 개체양사로 전용의 개별적인 양사를 지닌 명사에서 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Chao(1968:588)에서도 중국어의 명사는 다양한 개별적인 양사를 사용하여 명사의 의미를 부류화 하는데, '个'는 이러한 개별적인 양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吕叔湘(2002:264) 역시 일반단위사와 전용단위사의 구분을 통해 '个'를 다른 기타 개체양사들과 구별한 바 있다. 이처럼 다른 개체양사의 기능을 수렴하는 일반적인 양사 '个'의 넓은 쓰임에서 '个'의 높은 사용 빈도를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个'의 높은 사용 빈도에서 높은 문법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杉村博文(2006)는 중국어에서 '个'는 유일하게 문법적 기능을 가진 양사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个'의 문법적 기능은 부정관사로 대표될 수 있다. 吕叔湘(2002:139)에서는 '个'가 다른 개체양사와 달리 부정관사의 역할을 통해 고유한 문법적 기능을 지닌다고 하였다.

Heine(1997:69)에 의하면 유형론적 근거에 의해 부정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언어에서 부정관사는 대부분 수사 '하나'에서 기원한다. Lyons(1999:95)는 진정한 문법 표지로서의 부정관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언어에서 부정관사의 기능으로 대체될 만한 어휘는 수사 '하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현대중국어에서 '个'가 부정관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직관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중국어에서는 수량을 나타내기 위해 양사가 의무적이기 때문에 '하나'는 '一+양(CL)'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수사 '하나'에서 부정관사와 같은 기능어가 되기 위해서는 문법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각 언어마다 공시적인 문법화의 속도는 균일하지 않다. Heine(1997:71-73)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부정관사의 문법화 과정을 일반화하였는데, 이를 중국어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7 부정관사의 문법화 단계와 중국어의 예시

단계	기능	중국어 예시
1단계	수사(numeral)	我就偷了(-)个鸡蛋。
2단계	제시적 표지(presentative marker)	一只鸟从远山飞来了。
3단계	특정적 표지(specific marker)	我昨天见了(-)个朋友。
4단계	불특정적 표지(nonspecific marker)	我想买(-)个苹果。
5단계	일반화된 관사(generalized article)	明天下午先坐下来聊聊， 喝个茶吧！

[표-7]에서는 수사 ‘하나’가 문법적 기능을 얻으며 부정관사로 문법화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1단계에서는 수량 ‘하나’를 의미한다. 문법화가 시작되지 않은 언어에서는 수량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2단계부터 화용적 기능을 지니게 되는데, 수량 ‘하나’가 지니는 ‘존재’ 의미에서 담화 속에서 지시체를 제시하는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 2단계를 시작으로 3단계에서부터 더 문법적인 부정관사의 기능을 발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한정 명사구는 지시체를 상징할 수 있는 지시적 해석과 지시체를 상징할 필요가 없는 비지시적 해석으로 구분된다(김혜진 2023). 만약 표지의 문법화가 심화되었다면 지시적 해석이 가능한 특정적 표지와 비지시적 해석의 불특정 표지로 모두 기능할 수 있다. 부정관사의 문법화가 5단계까지 매우 심화된 단계에서는 ‘하나’가 지닌 단수성이 사라지고 물질명사, 복수명사까지 확대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Heine(1997:76)에 의하면 현대중국어에서 부정관사는 비교적 높은 문법화 단계인 4단계까지 발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一+양(CL)’은 3단계와 같이 지시적 해석도 가능하고 4단계와 같이 비지시적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4단계의 비지시적 해석에서는 다른 개체 양사에 비해 일반적인 양사 ‘个’의 수용도가 높아진다. ‘个’의 수용도는 5단계의 일반화된 관사 기능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sup>12)</sup>. 5단계에서는 물질, 복수명사까지 수식할 수 있다.

12) 김혜진(2020)에서는 동사에 후치하는 (-)+CL+N의 지시성에 따라 일반분류사 ‘个’와

이때 중국어에서는 다른 양사의 사용이 제한되고 '수'의 사용이 의무적이다. 呂叔湘(2002:159)에서는 동사에 후치하는 목적어는 항상 비한정이어서 동사 뒤에 항상 '(一)수'가 삽입되는데, 이때 '一'는 종종 생략되고, 유추 작용에 의해 필요 없는 구조에도 삽입되게 되는 현상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13)</sup> 이는 부정관사의 심화된 문법화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부정관사의 높은 문법화에 따른 명사 범주의 확장에 의해 수사 '一'의 첨가가 부자연스러워지고, '수'의 분포가 비전형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의 높은 빈도에 따른 문법화 가능성과 문법화에 따른 형식의 축소와 의미의 탈색은 구문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구문의 파생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수'가 기능어로 문법화되는 현상에서 구문화의 주요한 동인을 찾을 수 있다.

## 2) 구문화의 주요 기제

앞선 논의에서 'V+ 수+ NumP' 구문은 수량 구조를 목적어로 취하는 일반적인 동명 구조와 변별되는 분포적 제약, 상적 특성, 화용적 의미를 발현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V+ 수+ NumP' 구문은 독립된 구문으로 구문화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V+ 수+ NumP' 구문이 독립된 구문으로 구문화 과정을 겪게 된 주요한 기제는 무엇일까.

Traugott and Trousdale(2013:59)은 은유의 확장을 통해 구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V+ 수+ NumP' 구문에서는 양(quantity)에서 정도

개별분류사의 수용도를 실험한 바 있다.

- 13) '一'의 첨가와 수량 '하나'의 의미가 보존되는 문맥에서는 동사에 후치하는 一+ 양(CL)에서 '一'의 생략은 음성 약화와 같은 통사적 특성으로 분석될 여지가 있지만, 앞서 살펴본 부정관사의 심화된 단계에서는 '一'의 첨가가 불가하다는 점을 통해 '수'의 분화(divergence)로 분석할 수 있다. 음성학적 관점에서 동사에 후치하는 '一'의 탈락에 관한 연구는 李艷惠·馮勝利(2015)를 참고할 수 있고, 의미론적 분석은 Cheng and Sybesma(1999)를 참고할 수 있다.

(degree)의 은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양에서 정도로 변환되는 의미 이동은 한 영역(양적 수치)을 다른 영역(정도나 강도)으로 개념적으로 투사한다. 은유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념 간의 유사성이나 구조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한 의미 이동이다. 양에서 정도의 이동은 양적인 특성이 어떻게 감각적이고 추상적인 강도로 해석되는지의 유사성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은유로 볼 수 있다. 양은 ‘두 개’, ‘두세 번’, ‘다섯 그릇’ 등과 같이 물리적이고 수량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념인 반면 정도는 구체적인 수치나 단위로 측정되지 않고, 상대적인 강도, 빈도, 크기, 혹은 감각적 평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정도는 화자의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같은 표현이라도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객관적 수량에 대한 주관적 해석은 화자의 주관적 판단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양에서 정도의 은유적 확장은 주관화(subjectification)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Traugott and Köning(1991)에 따르면 주관화(subjectification)는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평가, 인식 등과 같이 화자의 관점이 투사됨으로써 점점 주관적인 의미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객관적인 수량 해석에서 주관적인 수량 해석은 곧 구체적인 양에 관한 해석에서 추상적인 정도에 관한 해석인 것이다. 가령 절대적인 수량 10개에 대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음’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적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반대로 ‘많다’라는 정도에 대해 어떤 사람에게는 10개를 의미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100개를 상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V+ 수+NumP’ 구문에서 은유적 확장이 일어나는 언어 환경은 무엇일까. 우리는 앞서 분석한 구문의 구성 성분을 통해 ‘V+ 수+NumP’ 구문의 은유적 확장은 타동성의 약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타동성의 약화는 동사가 특정한 대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동작에서 상태로의 전이를 이끌 수 있다. Hopper&Thompson(1980)는 타동성 약화에 따라 동작(action)에서 상태(state)로 변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동목 구조에서는 높은 타동성에 의해 동

작 의미가 강하다. 'V+ 个+NumP' 구문에서도 높은 타동사의 사용 빈도에 의해 높은 타동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구문 내에서 자동사와 형용사로 확장되는 현상에서 타동성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다. 타동성의 감소는 동작에서 상태로 의미 변화를 이끌고, 이는 구문내에서 'NumP'가 양에서 정도로 범주를 확장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타동성의 약화는 동일한 범주의 동사 내에서도 수량사의 종류에 따라 증차를 보일 수 있다. 이는 '吃' 동사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7)

- a. 人就是贱皮子。在家的時候每次包饺子，求我吃我就只能吃个四五个。  
사람이란 참 이기적인 법이에요. 집에서 매번 만두를 빚을 때, 먹으라고 애걸복걸해도 겨우 네댓 개 정도 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 b. 这个菜好吃极了，我每次吃个两三斤都不够！  
이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매번 2~3근 정도 먹어도 부족해요!
- c. 女宾席上可不这样简单，每一桌都至少吃个五六刻钟。  
여성 손님 자리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각테이블 마다 적어도 50~60분 정도는 먹는다.
- d. 最近很喜欢吃饺子了，一周要來吃个三四次才过瘾…  
요즘 만두를 정말 좋아하게 됐다, 일주일에 세네 번은 먹어야 만족한다.

'먹다' 의미의 '吃'는 전형적인 타동사이며 구체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대상역을 목적어로 가질 수 있다. 'V+ 个+NumP' 구문으로 실현되고 있는 (27)에서 (27a)와 같이 'NumP'가 명량사일 때 대상의 양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교적 높은 타동성을 나타낸다. (27a)에서 '四五个'는 4~5개의 만두를 의미하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양으로 표현되고 정도에 관한 해석은 단지 문맥의 도움을 통해 드러난다. (27b)에서 '两三斤'은 구체적인 측정값에 기반하고 있고 구체적인 개체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측정을 통해 나타난 값을 비교하거나 해석할 때 사용하는 척도를 통해 정도의 증차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과 정도의 해석이 중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7c)에서 수량 구조는 준량사로 비교적 추상적인 양을 표현하

는데, ‘五六刻钟’은 시간의 양으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27d)에서 ‘三四次’는 동량사로 동작의 양을 표현한다. 동작의 양은 개체의 양보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되기 쉽다. 이처럼 ‘V+ 수+NumP’ 구문에서는 동일한 타동사일지라도 수량 구조의 성격에 따라 타동성이 약화 되어 양이 정도로 해석되거나 두 개념이 모호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양과 정도의 은유는 관념적인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 경계를 정확히 설정할 수는 없지만 ‘V+ 수+NumP’ 구문이 정도를 나타내는 구문에 근접한 몇몇 문맥을 통해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28)

- a. 毛书记送来一只25公斤重的良种猪, 一个月就长个5.6公斤重。  
 마오 서기가 25킬로그램 무게의 우수 품종 돼지를 보내왔는데, 한 달에 5~6킬로그램 정도씩 늘어난다.
- b. 赶上好年景, 村上人能吃个六七成饱; 赶上旱年, 地瓜秧和野菜就成了家常便饭。  
 좋은 해가 오면, 마을 사람들은 대개 60, 70% 정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가뭄이 들면, 고구마 순과 나물들이 일상적인 밥상이 된다.
- c. 却才打个三五下, 只见庄里走出一个人来问道  
 그러나 막 세 몇 번 때리려는데, 마을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며 물었다.

비록 공식적으로 ‘V+ 수+NumP’ 구문이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보어 구문과 경쟁하며 호환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V+ 수+NumP’ 구문이 나타내는 정도에 관한 해석은 (28)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28a)에서는 도량사를 통해 정도를 나타내는데, 구문에서 ‘수’는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到’로 치환해도 수용가능하다. (28b)와 (28c)는 각각 준량사와 동량사를 통해 정도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수’를 ‘得’로 치환하여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구문으로 표현하여도 수용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타동성의 감소는 동작을 상태로 전이시키며 양에서 정도라는 은유적 확장을 이끈다. ‘V+ 수+NumP’ 구문은 이러한 언어적 기제 속에서 언어사용자의 주관화를 통해 하나의 독립된 구문으로 기능하게 된다.

### 3) 구문의 확장 가능성과 남은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V+ 수+ NumP' 구문은 종종 '수'의 비전형적인 분포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문변화와 구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구문과의 유사성을 통해 'V+ 수+ NumP' 구문이 갖는 비전형성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V+ 수+ NumP' 구문에서 '수'는 비록 비전형적인 분포이지만 다음과 같은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9)

- a. 借个书
- b. 吃个一两次
- c. 玩个痛快

(29)에서는 '수' 뒤에 명사, 수량 구조, 형용사, 동사로 각기 다른 품사로 인해 서로 다른 문법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동사 뒤에 '수'가 위치하여 'V수'라는 고정적인 통사적인 특징을 공유하게 된다. 이처럼 통사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각 성분들의 계열적 관계를 가정해 볼 수 있다. 朱德熙(2007:110-116)는 중국어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빈어(宾语)를 진빈어(真宾语)와 준빈어(准宾语)로 나누어 수량 구조와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까지 준빈어(准宾语)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근거로 (29)에서 수에 후치하는 성분은 일련의 계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29)의 구문들은 형식적 동일성과 분포적인 당위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관계를 통해 여전히 다른 구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각 구문들이 공유하는 통사적 특징에서도 각 구문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29)의 구문에서는 모두 '수'의 앞에 수사 '一'을 첨가할 수 없다. 이는 (29)의 구문에서는 모두 '수'가 양사의 지위를 잃고 허

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각 구문에서 ‘个’는 통사적으로 생략 가능하지만 ‘个’가 생략됨으로써 구문이 지니고 있는 화용적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각 구문이 공유하는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9)의 구문은 아래의 (30)과 같이 모두 동일한 구문으로 생산 가능하다.

(30)

- a. 摄影有意思! 毕了业买个相机玩玩!
- b. 我从来不喝酒, 但是今天老朋友聚会, 我就喝他个一两杯。
- c. 咱们就在这里喝, 喝他个痛快。

(30)에서는 (29)의 구문이 모두 대칭적으로 ‘V他个’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29)의 각 구문은 형태적, 통사적, 화용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구문화의 방향과 속도에 따른 비대칭적인 특징들도 존재한다. 구문의 문법화 관점에서 각 구문들의 비교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발견되는 ‘V+ 个+ NumP’ 구문의 구문적 지위를 검증하고 고유한 구문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V+ 个+ NumP’ 구문에서는 일반적인 동목 구조와 달리 동사 범주의 확장과 수량 구조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V+ 个+ NumP’ 구문은 목적어 명사의 분포에서 일정한 제약을 지니고, 비실현 양태와 함께 습관상을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 관측하였다. 또한 ‘V+ 个+ NumP’ 구문에서는 구체적인 수량으로 인식되는 객관량이 추상적인 수량의 주관량으로 해석된다. 주관량의 해석과 함께 구어적

색채를 나타내는 문맥에서는 'V+ 个+NumP' 구문이 더욱 선호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한 논의에서는 'V+ 个+NumP' 구문의 생성 동인과 기제를 유추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V+ 个+NumP' 구문의 생성 기제는 양(量)에서 정도(程度)의 은유적 확장 과정이며 이는 주관화를 통해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유사한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V+ 个+NumP' 구문이 생성될 수 있는 당위성을 살펴보고, 구문 변화의 관점에서 유사한 구문들의 비교 분석은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 參考文獻

- 김혜진, 「현대중국어 ‘V个N’ 구문의 생성기제와 화용적 기능 - 부정관사 ‘一个(-CL)’의 문법화를 토대로」, 『中語中文學』 no.79, 115-145, 2020.
- 김혜진, 「문두 비한정명사구의 화용적 제약 연구 -CLN(一量名)을 중심으로」, 『韓中語言文化研究』 no.68, 33-74, 2023.
- 박정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분류사의 발전 및 그와 한국어의 관련성」, 『國語學』 no.63, 391-412, 2012.
- WANG BEIBEI, 「动量短语与宾语共现时两种语序的焦点结构差异 — 以动量词“次”为例」, 『中國文學』 no.115, 61-77, 2023.
- 李艳惠, 冯胜利, 「‘一’字省略的韵律条件」, 『语言科学』 14, no.1, 1-12, 2015.
- 刘振平, 闫亚平, 「‘V个VP’中‘个’的主观化走向——从主观赋量到主观赋形」, 『语言教学与研究』 no.1, 72-79, 2019.
- 雷冬平, 「‘v个xp’构式家族及其主观量一致性研究」, 『上海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6, no.3, 11, 2017.
- 陆志军, 「动宾式短语‘V个NP’的语法特性、时体意义与句法结构」, 『语言科学』 21, no.5, 498-508, 2022.
- 吕叔湘, 「个字的应用范围, 附论单位词前一字的脱落」, 『吕叔湘全集』第二卷, 辽宁教育出版社, 2002.
- 马庆株, 「自主动词与非自主动词」, 『中国语言学报』 no.3, 1988.
- 彭睿, 「构式变体和形式异变——‘v(x\_(无指))个vp’构式的产生」, 『当代语言学』 23, no.2, 21, 2021.
- 祁杰, 「‘V个VP’结构的主观性及主观量研究」, 『湖南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15, no.3, 113-116, 2010.
- 杉村博文, 「量词‘个’的文化属性激活功能和语义的动态理解」, 『世界汉语教学』 no.3, 7, 2006.
- 尚新, 「时体、事件与‘v个vp’结构」, 『外国语』 no.5, 10, 2009.
- 熊周梦为, 王宇波, 「结果义结构‘v个np’的特征, 功用和生成机制」, 『新疆大学学报：哲学·人文社会科学版』 48, no.2, 8, 2020.
- 赵楠, 「自主动词和非自主动词研究」, 『法制与社会』 no.12, 2017.

- 张国宪, 『现代汉语动词的认知与研究』, 上海: 学林出版社, 2016.
- 周清艳, 「'v个特殊动量n'格式形成的动因和机制」, 『五邑大学学报(社会科学版)』 17, no.3, 74-77, 2015.
- 朱德熙,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2007.
- 朱洁, 董盼, 「从新的角度考察'v个vp'结构关系」, 『湖北第二师范学院学报』 30, no.4, 3, 2013.
- Aikhenvald, Alexandra Y. *Classifi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Allan, Keith. "Classifiers." *Language* 53, no. 2 (1977): 285-311.
- Chao, Yuan Ren.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Cheng, Lisa, and Rint Sybesma. "Bare and Not-So-Bare Nouns and the Structure of NP." *Linguistic Inquiry* 30, no. 4 (1999): 509-542.
- Givón, Talmy. *Syntax: An Introduction*. Vol. 1.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01.
- . *The Diachrony of Grammar*.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15.
- Heine, Bernd.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Hopper, Paul J., and Sandra A. Thompson. "Transitivity of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no. 2 (1980): 251-299.
- Lyons, Christopher. *Defin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Traugott, Elizabeth Closs, and Ekkehard König. "The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In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ume I.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189-218. Amsterdam: John Benjamins, 1991.
- Traugott, Elizabeth Closs, and Graeme Trousdale.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Abstract

### Study on the ‘V+个+NumP’ Construction in Modern Chinese

Kim, Hye Jin

This study examines the syntactic status of the ‘V+个+NumP’ construction in Modern Chinese and aims to clarify its unique pragmatic meaning. The ‘V+个+NumP’ construction exhibit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verb category and the diversity of quantification structures, with specific constraints on the distribution of the object noun. Additionally, this construction expresses modality with certain restrictions and primarily appears in the irrealis and habitual aspects. From a pragmatic perspective, the selection of the ‘V+个+NumP’ construction is preferred for expressing abstract quantities through subjective interpretations of quantity. This construction has strong colloquial characteristics and conveys a light, informal tone. The main mechanism behind the generation of this construction is the metaphorical extension from quantity to degree, which is realized through subjectification. Finally,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struction is confirmed by comparing it to similar constructions in terms of form.

**Key words** : 个(ge), Classifier, Constructionalization, Subjectification, Metaphor, Transitivity, Subjective quantity, Quantity, Degree

투 고 일 : 2025. 1. 10. / 심 사 일 : 2025. 1. 15.~ 2025. 2. 15. / 게재확정일 : 2025. 2. 20.